

권두언

<인권연구> 7권 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8년에 <인권연구>가 첫 발자국을 떼었을 때 허허벌판에 새집 짓는 기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가면서 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인권연구>는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논문을 기증받아 운영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최근에는 투고되는 논문의 편수가 크게 늘었고 논문들이 다루는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으며 문제의식도 깊어졌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활동을 담아내는 큰 마당으로서 <인권연구>가 학자·연구자들의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번 호에도 <인권연구>의 다양성과 학제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연구물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헌법과 제도의 쟁점부터 사회적 인식, 역사의 재해석, 권리의 충돌과 제한범위 등을 다룬 흥미로운 논문들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사회권규약 개인통보제도: 절차, 관할권, 심리적격을 중심으로” 논문에서는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개인의 사회권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통보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국내 최초의 논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권위원의 자격”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격 요건과 인권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가 처해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단지 인권위 조직의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의 미래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시의적절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문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 중 여

성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폭력 양상을 다루면서 젠더폭력 과거사 청산과 피해생존자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기 민주주의의 문제가 주로 탈성별화된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인식과 시사점: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의 IPA 분석”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수행한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류한 인권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인권의 현 상황을 진단합니다. 인권의 제도적 발전과 국민의 인권의식 변화는 인권을 추동하는 양대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인권의식 실태는 인권제도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위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논문은 장애인 단체가 전개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장애인의 이동권과 비장애인의 교통 불편이라는 길항적 구도 하에서 어떻게 인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다룹니다. 집회·시위에 수반되는 위력 과시와 집회의 자유 보장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범죄’는 올바른가?” 논문은 최근 경찰학계에서 ‘묻지마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이른바 ‘비정상’을 전제하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상동기범죄’의 근간이 된 ‘이상심리학’적 관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국제법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치안의 관점과 인권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논단에는 “‘돌봄할’ 권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주의적 해법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인도주의 구호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이주민 보호_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를 중심으로”가 실려 있습니다. 인권과 인도주의의 현장을 누빈 활동가, 실천가들의

경험과 관찰이 통렬하게 표현된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인권연구>에 좋은 글을 투고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인권연구>에 실린 글들을 읽고 많이 인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언급해 주시고, 교육에 활용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연구> 창간부터 굳건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모든 회원님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연구>를 인권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키워주고 계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늘어난 투고 논문들을 관리하고 편집의 실무를 맡아서 애써 주신 편집간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한국인권학회장 **조 효 제**